

2023년 03월 12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7편 15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413(통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욥기 19장 21~29절(구약p.779)

21.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22.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23.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24.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25.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7.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낫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28.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29. 너희는 칼을 두려워 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 ◎ 말씀선포 / 욥의 믿음

욥은 고난 속에서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의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욥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 주이십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며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굳건히 서 있

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욕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 성도는 구원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 욕은 비참한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자가 확실히 살아 계신다고 선포하면서 그분이 언젠가 자기에게 임하시리라고 선언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리고 만약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을 뵈게 되리라 확언합니다. 26절입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욕은 여전히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친구들을 통하여 그의 고난과 고통은 더욱 가증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욕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참으로 감잡힌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욕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찬송가 545장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소리 아니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위에 서리라.” 우리는 그저 입으로 찬송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사한 호레이쇼 스페포드는 무디 목사님의 동역자요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1871년에 일어난 큰 화재로 투자했던 모든 재산을 잃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으로 가던 여객선의 침몰로 네 명의 자녀들까지 잃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침몰한 사건 현장에서 끊어 오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며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온갖 고통과 슬픔에서 그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는 즉시 자기 마음에 가득 찬 평안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슬픔 속에 탄식하며 울부짖는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분명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이루시는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며 나의 삶에 앞장서 가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더욱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견디며 마침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2. 성도는 의로운 심판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 욕은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후에 친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만약 계속 자신을 죄인이라 정죄하고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비난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28~2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 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욕은 하나님의 분노가 친구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지금 욕은 친구들의 정죄 대상이 되어 공격받는 처지에 있었으나 그 모든 압박에도 불구하고 위축되거나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서 친구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소망 하며 더욱 의로운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욕의 이러한 믿음은 마침내 하나님이 욕을 찾아오셨을 때 분명히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욕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으며, 욕의 중보기도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적들을 정죄하시고 징계해 주시리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애가 3장 59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24장 15절에서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1장 22~23절에서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걸음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옆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오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마음에 원망과 분노를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44편 1~6절에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데도 여호와와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흠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라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화살로 원수들을 흠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고 말할 날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모든 것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말기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그 범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여 놓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려움을 겪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들은 온갖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최종 심판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본받아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545(통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어도

### ◎ 폐 회 / 주기도문